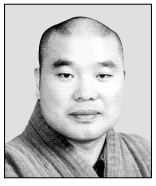


일주문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경내에서 '탄신 496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해인 스님 초청 강연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4월 17일 오전 11시 경내 함월당에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해인 스님 강연을 개최한다.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4월 14~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대불청 제주도 문화기행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4월 30일~5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2016 대한불교청년회 제주도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대불련총동문회 임원 회의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4월 2~3일 대전 유성 유스호텔에서 '2016년 임원·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방송협회 이사 재선임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4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포교·봉사로 하나 될 터”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 대원 스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도록 자리를 만들고 단합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 동래구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대원 스님 <사진>은 사회 환원을 주 활동으로 삼아 더욱 정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4월 2일 부산 금불사 경내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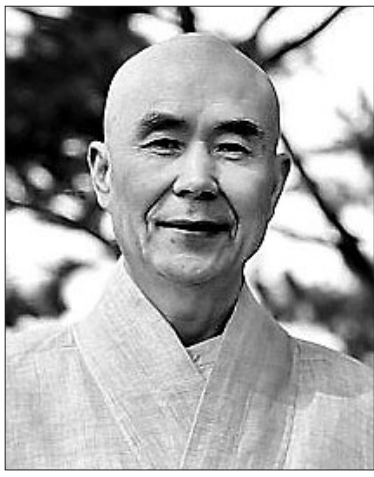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대원 스님은 “동래구 지역을 위해 봉사와 포교는 기본”이라며 자비나눔을 더욱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르신들 위안잔치, 경찰과 소방관 격려금 전달 등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42.195km, 행복으로 가는 길”

Interview

선재선재나눔 이사장 효은 스님



“몸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 몸을 다스린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원각의 경지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 걸림이 없는 경지일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견디고 남은 것은 불구의 몸이었다. 교통사고로 좌골신경은 부서졌고,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앉아 있기도 힘든 몸이 됐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 과정 하나를 수행이라 부르는 효은 스님(선재선재나눔 이사장·사진)은 책 <건강 100세의 지혜>를 엮어냈다.

효은 스님은 4월 2일 P&O갤러리에서 개최한 출판간담회 자리에서 책을 출간한 이유가 오직 ‘대승적 의지’였다고 말했다.

효은 스님은 “책을 준비하며 많이 갈등했다. 내가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를 범하는 것이면 어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에 있어 간과하는 부분과 특히 불자들이 알아야 할 건강 지식을 경험의 토대에서 나누고, 도움을 주

교통사고 장애 마라톤으로 극복 경험 담은 <건강 100세~> 발간 “많은 사람들 건강 위해 펴낼 것”

고 싶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이며 그 산소를 통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의 감정을 갖도록 돕는 호르몬이 나와 삶을 영위할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스님이 산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때문이다. 피가 맑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몸속 세포 하나하나 산소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스님은 마라톤을 선택했다. 현재 스님은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21번 완주했다. 스님은 마라톤은 곧 수행이라고 말했다.

효은 스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계속 달리면서 이것이 곧 수행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달리는 동안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이다. 집중하는 과정에 오직 나만 보이며 집중하는 동안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스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갖고 있는 지식을 쏟아낼 계획이다. 또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은 스님은 현재 부산 해운대 선재선재나눔 이사장이다. 선재선재나눔은 암환자를 지원하며 건강을 영위하도록 돕는 곳이다. 특히 10·27법난 당시 피해를 입어 몸이 불편한 스님들을 돌보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4대강 100일 순례 'START'

불교환경연대, 영산강 하구언서 입재

지난 3월 신임 공동대표단을 꾸린 불교환경연대가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올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4월 3일 목포 영산강 하구언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입재식을 거행했다. <사진> 100일 수행길 순례단장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이 맡았으며, 순례단원은 부단장 중현 스님과 공동대표 행법 스님, 유연 스님 외에 재가불자 5명으로 꾸려졌다.

순례단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4대강 일대를 하루 10~15km 행보하며, 오재두지·묵은·방생 등 불교적 수행과 함께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산강 구간을 마치는 4월 17일에는 담양 용소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들을 위로하는 전도재를 봉행한다.

법일 스님은 “강을 따라 걸으며 우리 안의 탐욕과 무지를 참회·성찰하고, 자연 속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배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고문 현교 스님(원각사 주지), 공동대표 행법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지극정성으로 써내린 선묵 감탄”

윤상민 서예가 불림비스타 초대전 개막

불자 서예가 정우 윤상민(62) 작가는 4월 1일 경기 양평 불림비스타 갤러리에서 ‘마음들’을 주제로 한 초대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개막식에는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과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해수 스님, 참선원 무에 스님을 비롯해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입재우·선주선·최민열·정용표 서예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윤상민 서예가의 <급강경> 작품은 여러 생애 걸쳐 익혀낸 정진세계가 하나의 현상으로 펼쳐진 사리와 같다”고 격찬했다.

해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스님의 법어와 경전의 좋은 말씀들, 그리고 윤상민 서예가의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을 관람객들이 오래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민 서예가는 “대행 선사는 마음공부와 서예를 둘 다 가르쳐 주신 큰 스승이시다. 오늘자리는 선사께 올리는 회향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행선사 법어와 불교·유교·도교 경전의 마음 관련 명구를 담은 47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031)770-8812 신성민 기자

FCA동암미래예측학 1기 수료

15주 교육...수료생 31명 배출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는 3월 21일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FCA동암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1기 수료식 및 민간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15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3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윤호섭 기자

미얀마 화재돕기 성금 전달

국제불교봉사단, 미얀마대사관에 700만원



국제불교지도자협의회 국제불교봉사단(총재 목탁)은 4월 5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목탁 스님, 정영숙 봉사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옛 우 마웅 미얀마 대사에게 미얀마화재 복구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미얀마는 올해 2월 산주 북부 남산지역과 에야와디구, 랏캣따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80여 가구에서 2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성금을 전달 받은 옛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정련 스님, 성역화기금 2천만원

4월 4일 아름다운동행 측에 전달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이 4월 4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 측에 성역화 불사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련 스님의 상좌 지일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지일 스님은 “조계종 성역화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불사기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불기 2560년 빛고을관동회. 등(燈)은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구이자, 사람과 생명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듭니다. 해마다 광주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016 빛고을관동회에는 광주전에 전통문화의 복원을 상징하는 전통등을 전시합니다. 140만 광주시민들의 마음속에 광주전은 늘 아련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빛고을관동회는 광주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Table with 4 columns: Content, Sub-content, Venue, Date. Includes events like 'Light Festival', 'Buddhist Cultural Festival', and 'Religious Activities'.